

예능, 대세는 '여행'



tvN '서진이네'



tvN '장사천재 백종원'



ENA '지구마블 세계여행'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풀리고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해외로 떠나는 여행 예능이 속속 나오고 있다.

18일 방송가에 따르면 세계여행을 테마로 한 보드게임 '부루마블'을 모티브로 한 프로그램부터 현지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거나 연예인들의 진출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버라이어티 예능까지 다양한 여행 예능이 주목을 받고 있다.

◇ 주사위 굴러 여행지 랜덤 결정... '부루마블' 현실판 예능

MBC에서 13년간 인기 예능 '무한도전'을 만들어온 김태호 PD는 MBC를 떠나 ENA에서 신작 '지구마블 세계여행'을 다음 달 4일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김 PD가 직접 설계한 부루마블 게임으로 세계여행을 떠나는 콘셉트로 여행 유튜브 빠니보틀, 콕투브, 원지가 출연한다.

출연자들은 주사위를 던져 랜덤으로 정해진 곳으로 여행지를 떠나고, 유튜브 채널 '테오'(TEO)에 각자의 여행 영상을 게재한다. 영상 조회 수가 가장 높은 출연자에게 우승이 돌아가며, 최종 상품은 '우주여행 티켓'이다.

세계 곳곳이 아니라 한 나라 안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현실판 '부루마블' 예능도 준비돼 있다.

올해 상반기 공개 예정인 티빙 오리지널 '브로마블(가제)'은 두바이 내 명소들을 여행한다. 배우 이승기, 유연석, 이동

ENA, 게임으로 세계 여행 tvN, 멕시코서 K-분식점 SBS, 핫카이도서 미션 수행 JTBC, 세계 학교서 K급식

휘, 그룹 세븐틴 호시, 조슈아, 슈퍼주니어 규현, 방송인 지식진이 함께한다. 멤버들은 주사위를 굴러 도착한 도시를 구매하고, 다른 멤버가 자신이 구매한 도시에 도착하면 통행료를 받는 등 보드게임 '부루마블'의 규칙을 따른다.

◇ 한식으로 사로잡는 세계인 입맛... 급식·분식·백반 판매

한식을 앞세워 해외로 나가는 프로그램들도 눈길을 끈다.

JTBC는 이연복 셰프가 이끄는 '한국인의 식판'을 다음 달 선보인다. 프로그램 테마는 '급식'으로 세계의 명문학교, 글로벌 기업 등 전 세계 급식이 필요한 곳에서 적게는 100인분, 많게는 300인분에 달하는 단체식을 만든다. 이연복 셰프를 비롯해 김치 사업을 하는 방송인 홍진경, 영양사 김민지, 개그맨 허경환, 남창희, 그룹 몬스타엑스의 주현이 급식 군단으로 출연한다.

해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tvN '윤식당' 시리즈는 스페셜 '서진이네'로 오는 24일 돌아온다. '윤식당'에서 이사

였던 이서진이 사장으로 승진해 멕시코에서 김밥, 라면, 떡볶이, 핫도그 등 분식을 판매한다. 배우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과 더불어 글로벌 스타인 BTS(방탄소년단) 멤버 뷁가 함께한다.

요리연구가 백종원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한식당을 연다. 아직 프로그램 정보가 비밀에 싸인 tvN '장사천재 백사장(가제)'은 백종원이 나폴리의 80년 역사의 정통요리 식당을 개조해 비빔밥, 파전 등 한국의 백반을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시기는 미정이다.

◇ 핫카이도 수학여행·시드니 워킹홀리데이... 멤버들의 '티키타카'

연예인들의 평상시 모습을 볼 수 있는 해외여행 예능도 있다.

SBS는 그룹 잔나비의 최정훈, 예소의 디오, 가수 크라쉬, 지코, 개그맨 이용진, 양세찬이 함께 일본 핫카이도로 떠나는 '수학 없는 수학여행'을 다음 달 9일 선보인다. SBS 대표 인기 예능 '런닝맨'을 만든 최보필 PD의 신작으로 고베 풀린 여섯 남자의 낭만 가득한 여행을 보여준다. 멤버들은 눈 쌓인 핫카이도에서 특별한 미션도 수행한다.

MBN은 연예인과 일반인이 함께하는 '남생처우 우리끼리'를 다음 달 처음 방송한다. 방송인 노홍철, 이국주, 가수 KCM이 낯선 곳을 자유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으로 매회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일반인이 함께한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기억... '이영만 연극상' 제정



고(故) 이영만 군 어머니 이미경 씨 제정...작품상 '2014년생'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참사가 남긴 교훈을 작품에 녹여내는 연극인을 기념하는 '이영만 연극상'이 처음으로 열렸다.

이영만연극상 집행위원회는 제1회 이영만연극상 시상식을 19일 서울 중로구 연극실험실 해화동 1번지에서 열고 작품상에 연극 '2014년 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극 '2014년 생'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에 태어난 주인공 시원이 바라본 참사를 통해 아동 인권과 진정한 애도의 의미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김주희 씨가 연극 제작에 참여했으며, 송김경화가 연출을 맡았다.

배우상은 지난해 제5회 페미니즘연극제 출품작인 연극 '240 245'의 박은호가 받았다.

단체상에는 2019년부터 4년간 연극 '제자리', '살아갈, 사라진, 사람들', '2022∞세월호' 등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어 온 연극실험실 해화동1번지 7기 동인이 선정됐다. 특별상은 청각 장애인을 위해 무대에서 수어 통역을 해 온 수어통역사 장진석에게 돌아갔다.

이영만 연극상은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고(故)이영만 군(당시 단원고 2학년 6반)의 어머니이자 연극배우인 이미경 씨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연합뉴스

최수종, 10년만에 사극 귀환

KBS '고려 거란 전쟁' 강감찬 역

배우 최수종(61)이 10년 만에 KBS의 새 대하 사극으로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KBS는 최수종이 공영방송 50주년 특별 기획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의 강감찬 역을 맡았다고 20일 밝혔다.

'고려 거란 전쟁'은 관용의 리더십으로 고려를 하나로 모아 거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고려의 황제 현종과 그의 정치 스승이자 고려군 총사령관이었던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다.

신생국 고려와 당대 최강국인 거란제국이 26년간 맞붙은 전쟁과 그 고통을 끝낸 귀주대첩의 주역 강감찬 장군의 완벽한 승리를 그린다.

최수종은 70세 고령의 문관이었지만 고려 제8대



왕 현종의 신임을 얻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투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영웅 강감찬을 연기한다.

연출은 '당신의 하우스헬퍼', '최강 배달꾼'을 연출했던 전우성 PD와 '입진왜란 1592'로 최수종과 합을 맞췄던 김한

솔 PD가 함께 맡았다. 극본은 '태종 이방원', '최강 배달꾼', '조선 총잡이' 등을 집필한 이정우 작가가 썼다. '고려 거란 전쟁'은 올해 하반기 방영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바타2' 역대 글로벌 흥행 3위

국내 누적 관객 1074만여 명

할리우드 대작 '아바타: 물의 길'(아바타2)이 역대 글로벌 흥행 3위에 올랐다고 20일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가 밝혔다.

디즈니 측에 따르면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2'는 이달 19일까지 글로벌 누적 흥행 수익이 22억4320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로써 '아바타2'는 '타이타닉'(22억4280만 달러)을 넘어 역대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다.

역대 글로벌 박스오피스 1위는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29억2000만 달러), 2위는 마블의 '어벤져스:엔드 게임'(27억9000만 달러)이다.

'아바타2'는 지난해 12월 14일 국내에서 개봉한 뒤로 누적 관객수 1074만여 명, 매출액 누계 약 1369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